

주목! 이사람



이흥목 농림전남지역본부장은 21일 오전 10시 영광군 인삼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한다.



박태선 농림광주지역본부장은 21일 오후 1시 본부장실에서 농협생명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갖는다.

LH, 올해 공공주택 건설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약 7,00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민간참여 사업지는 사전 용역 3블록(508가구), 목포 백련 A-1블록(456가구), 양주 옥정 A1블록(2,089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S8블록(608가구), 인천 영종 A40블록(860가구) 등 9개 블록 6천773가구에 이르며 4월 중 발주될 예정이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사업 협업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공공-민간 공동사업방식이다. LH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는 주택을 건설·분양해 분양수익을 투자자분에 따라 상호 배분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토지비 등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 적은 리스크로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는 건물 공사비를 민간 자금으로 조달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공공주택기획처(055-922-3872-5)로 문의하면 된다.

하나카드로 가전제품 사면 무이자할부·캐시백 현금

하나카드는 이사 철을 맞아 3월 한 달간 전국의 LG전자 베스트샵과 하이마트, 전자랜드에서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 베스트샵에서 하나카드로 70만원 이상 결제하면 3만원을 돌려받고,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5개월 무이자 할부로 살 수 있다.

또 하이마트에서는 결제금액에 따라 200만원 이상을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최대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전자랜드에서 다이슨 청소기를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10만원을 캐시백 받는다.

전기요금 낮춰도 가정 전력사용 비소

전기요금 인하에도 이번 겨울 주택용 전력사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만 최대수요는 전년보다 늘어나 폭 필요할 때 큰 부담 없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가정용 전력사용량은 5,989GWh로 전년 같은 달보다 0.5% 늘었다.

완화된 주택용 누진제가 처음 적용된 지난해 12월 가정용 전력사용량이 5,602GWh로 1년 전보다 0.7%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년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검침일에 따라 일부 가정은 지난해 12월 전력사용량에 누진제 개정 전인 전월(11월) 사용량이 일부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13일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고 같은 달 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당시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내려가면서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치 쟁점화 금호타이어 매각...채권단 선택은

정치권 중국 매각 반대 vs 컨소 허용맨 소송

산업은행·채권은행 입장 22일까지 회신

지분 기준 75% 이상 찬성 인수 방안 허용

산업은행이 20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에 박삼구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서면 부의하기로 함에 따라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대중국 여력이 나빠진 상황에서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중국업체에 넘기는 것에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채권단의 고민이 깊어졌다.

산업은행이 이날 컨소시엄 허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안을 각 채권은행에

발송한다. 채권은행은 입장을 정해 22일까지 회신해야 한다.

지분 기준 75%가 찬성하면 박삼구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지분을 보면 우리은행(33.7%), 산업은행(32.2%), 국민은행(9.9%), 수출입은행(7.5%) 등의 순이다.

우리은행이나 산업은행 중 어느 한 곳만 반대하면 7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분 구조다.

채권단 실무진이 지난 17일 모여 논의

했을 때만 해도 이번 안건 부의가 절차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자는 차원이었다.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한 논의 없이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회장 측이 채권단과 맺은 약정서에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적혀 있는 것을 근거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채권단에서 논의해달라

고 두 차례 산업은행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박 회장의 요구대로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채권단에서 논의해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를 없애자는 것이 당시 채권단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 사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상황은 복잡해졌다.

금호타이어의 공장이 광주, 곡성 등에 있어 민주당 정치인들이 호남 민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정치인들의 '떡볶이' 논란이 있었던 쌍용차 매각에 빗댄 점은 채권단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그렇다고 채권단이 컨소시엄을 허용

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도 쉽지 않다. 채권단과 주식매매청구권(SPA)을 체결한 중국의 더블스타가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박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것이라며 컨소시엄 구성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더블스타도 그렇게 알고 입찰에 참여했다.

채권단이 컨소시엄을 허용하면 더블스타가 채권단이 입장을 뒤바꾼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지난주에 있었던 논의는 범주법에서 모여서 법적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주제였다"며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채권단 윤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쏘울 전기차 "섬 우도 달린다"

기아차, 우도 렌터카업체에 100대 판매

"쏘울 전기차가 '탄소없는 섬' 우도의 꿈을 응원합니다" 기아자동차(주)는 제주 우도의 첫 렌터카 업체에 쏘울 EV 100대를 판매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아차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렌터카 업체인 '우도전기렌트카'는 우도 최초의 현지 렌터카 업체로, 이번에 쏘울 EV가 영업용 차량으로 선정되면서 '우도의 첫 렌터카' 타이틀은 쏘울 EV가 얻게 됐다.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우도는 '탄소없는 섬'이라는 목표 아래 순수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번 쏘울 EV와 함께 출범한 전기차 렌터카 사업은 우도의 탄소없는 섬 실현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우도에서 쏘울 EV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티켓몬스터)'에서 '우도렌터카'를 검색해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직접 사무실로 전화(064-783-3355)해서 예약하면 된다.

/서미애 기자



한국전력은 20일 국내 전력산업 중소기업과 함께 말레이시아 최대 국제 전기전력산업 전시회에 참가했다.

한전, 말레이시아 전력수출시장 노린다

최대 국제 전기전력산업 전시회 참가 중기 공동관 구성...해외 개척 지원도

한국전력은 20일 전력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말레이시아 최대 국제 전기전력산업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전기전력 전시회는 말레이시아 전력부 및 전력협회와 단체의 후원하에 35개국 450개 기업이 참가했다.

한전은 이번 전시회에 전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12개사와 함께 참가했다. 한전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의 전시 부스 인차, 전시물품 운송, 통역 등의 비용을 지원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나라다. 빠른 경제발전과 산업인프라 개발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예비전력이 급감하는 대표적인 전력산업 성장국가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000M급 발전 플랜트 4기 건설,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스마트시티와 대용량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인 연갑기, 개폐기 등 전력 기자재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사업 분야 우수 기술 홍보를 통해 말레이시아 전력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효과적인 현지 판로 개척을 위해 자국 바이어를 통한 수입을 선호하는 말레이시아 시장 특성을 감안해 현지 주요 바이어 사전 조사 및 중소기업과의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한전은 상담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시회 후에도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를 수행하기로 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전남, 농수산물 수출 환경 '호림'

전북 등 수산물 수출 주도...사드 보복 우려도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은 10%대의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사드 보복 조치의 영향으로 수출 환경은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1~2월 현재 광주·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6,167만 달러로 전년 동기 같은기간 5,558만 달러에 비해 10.1%증가했다.

이 같은 수출증가세는 전북, 김동수 수산물의 국내생산량 안정화로 인한 수출공급량의 꾸준한 증가, 맥주를 비롯한 주류의 해외 인기도 상승과 임산물로 분류되는 세월의 AI(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영

향으로 인한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 맥주는 866만 달러, 김 771만 달러, 전북 506만 달러, 세월 229만 달러 등이 수출증가를 주도한 반면 중국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유자차의 경우에는 사드 영향으로 인한 중국의 발주물량 감소로 지난해 같은 시기 526만 달러에서 올해 346만 달러로 34% 이상 하락하는 어려움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영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농수산물 수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사드 보복조치의 영향으로 수출환경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오늘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쇼케이스

콘텐츠 전시 및 체험, IR DAY 운영 등 성과를 공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은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쇼케이스를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은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청년단체 등과 함께 콘텐츠 창작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를 지원한다. 지역 콘텐츠와 창작자를 발굴에 중점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난해 유지한 사업이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콘텐츠 프로토타입 전시·체험, 창의력 증진을 위한 레고, 드론, 제어용 기판을 조립하는 아두이노 등의 워크숍(스킬업)을 마련했다. 1년 동안 평가를 통해 우수콘텐츠로 뽑힌 기업(팀)의 콘텐츠 IR(Investor Relation) DAY 행사 등 다채로운 콘텐츠와 창작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홍애란 기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게임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남글로벌게임센터 비전데이

(제)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전남글로벌게임센터는 오는 23일 지역 게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남글로벌게임센터 비전데이를 나주 혁신도시 호텔코어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추진한 전남글로벌게임센터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체험형 게임 개발 관련 우수사례 발표와 체험행사를 통해 미래 전남 체험형 게임산업의 비전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연·체험과 성과공유·비전제언 행사장 두 곳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시연·체험 행사는 전남글로벌게임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다양한 체험형 게임콘텐츠 7종을 체험할 수 있으며, 체험행사와 함께 각종 이벤트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공유·비전제언 행사에서는 ㈜바른손의 강

신범 대표가 '전남 체험형 게임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안한다. 체험형 게임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수혜기업 ㈜뉴믹스미디어웍스, ㈜키카게이츠, ㈜내꺼의 사례발표와 릴레이 토크가 진행된다.

오창렬 전남진흥원장은 "지난해 글로벌게임센터 구축과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체험형 게임산업의 집적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비전데이는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체험형 게임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조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글로벌게임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도의 지원을 받아 인프라 조성,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등 지역 내 체험형 콘텐츠 게임 산업을 집중 육성해왔으며, 지난해 27일 나주 혁신도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내 정식 개소했다.

/홍애란 기자